

—對 話—

“간디”를 생각하며

간디 ! 1942 년으로 기억한다. 그때 일본 신문은 간디가 反英운동으로 죽음을 자오한 20 일 금식에 돌입한다는 보도를 계속했다. 나는 그때 사발의 大學豫科生으로 「장엄」한 결심을 하고 나를 찾아 올만한 친구들에게 당분간 방문하지 말라는 엽서를 띄우고 그와 함께 단식하기로 했었다. 하숙집 주인에게 사전 통고하고 일본어로 된 간디 選集을 놓고 자리를 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엄」한 결심은 금식 나흘만에 중단됐다. 이틀째 되는 날부터 후회하기 시작, 사흘되면 날은 벌써 기진맥진해져서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은 서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금 老驄의 간디를 연상하면서 땀흘려나갔는데 멀리 北支에서 오랜 집안 친지가 찾아와서 방해를 받은 것이다. 그가 온갖 수단으로 내 결심을 중단 시킬 때 난 속으로는 구원의 손같은 심정으로 마치 못한채 가져다준 죽고릇을 들면서 한 줄기의 눈물을 흘렸다. 간디에게 미안하다는 인사였다. 이렇게 그를 「배신」한 후 나는 별로 그에게 관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8 년 1 월 30 일에 간디가 그를 따르던 한 청년(Nathuram Vinayak Godse)의 권총에 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든 신문을 눈물로 적시었다. 그것은 단순히 셀티멘탈한 눈물이었다.

구라파에 가서 거의 잊었던 간디가 내 마음에 도로 살아났다. 나는 여러 단체나 가정에서 간디像을 슈바이처와 나란히 걸고 그들을 따르려는 심정을 많이 봤으며 무엇보다 인도의 여자 유학생들이 간디가 제창한 채손으로 물레질 해서 만든 「사리」만을 걸치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랬다.

그러던 중 인도의 도보하는 성자(India's Walking Saint)라는 영국인 Hallam Tennynson 이 쓴 책을 읽고 내 나름대로 너무 감격했던 나머지 「간디는 살아 움직인다」라는 긴 감상문을 思想界誌에 보냈었다. 그것은 간디의 정신적인 후예의 「비노바」(Vinoba)의 土地 회사운동(Bhoodan 운동)에 관한 것이다. 이 저자는 일련이상을 「비노바」를 따라 다니면서 그의 말, 거동을 수집한 것이다. 나는 「비노바」의 거동을 읽으면서 그가 바로 다시 살아난 간디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간디는 합석현선생의 표현대로 바늘 한 개 갖지 않고 英國의 백만대군을 후퇴시켜서 인도를 정치적으로 독립 시켰다. 그 다음에는 힌두와 모슬렐간의 민족 상쟁의 틈바구니에서 그 양상한 老驄을 육탄 삼아 내 내면서 그 화해의 제물이 되려고 한 것이다. 야수같이 흥분한 군중들은 이 肉彈앞에 잊었던 이성을 찾아 8 개 조항의 평화건의안을 간디에게 바치므로써 간디를 사랑하는 인도의 마음은 다시 그

에게 모여졌던 것이다. 죽기로 결심하고 단식한지 열 하루만에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새 인도의 기초가 될 헌법 초안을 몸소 작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도가 새로 살아 날 가능성에 기뻐했지 자기를 제물로 바쳐야 할 자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그는 이 초안을 끝냈을 때 전에 없던 극도의 흥분에 떨었다고 한다. 이 초안을 완성한 그는 그가 주재하는 교회에 나가기 앞서 「중요한 내 편지들을 가져오라, 내가 오늘 회답을 써야 하겠다. 어쩌면 내일은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될지 모르니」 이런 저시로 써야 할 편지를 다 쓰고 그의 손녀들 몇 사람의 부축으로 거리로 나섰다. 그는 죽음을 예감했던 것이다. 군중은 이 노구를 둘러싸고 환호를 올렸다. 그는 미소로 저들에게 답례하기 위해 배없는 손을 간신히 들었다. 그때 군중을 헤치고 접근한 한 청년의 흉탄이 그의 가슴을 뚫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오 하나님”(He Rama) 한마디의 마지막 기도와 더불어 들었던 그의 손은 피흐르는 가슴을 스쳐 내려지고 그 몸은 조용히 땅에 쓸어졌다. 마치 온 몸 전체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영원한 제물이 되려는 듯이.

아무리 착한 가슴에도 不義의 총알은 뚫고 들어갔다. 善이 이긴단 말은 거짓말이다. 不義의 총알은 善을 쓸어버린 것이다. 언제 善意가 이기던가? 역사는 불의가 선을 죽여버리는 피로 물들어 있지 않나? 「소크라테스」에게 내려진 불의의 독약이 그에게는 효력이 없던가? 예수를 박은 못과 그의 열구리를 찌른 창에 그도 어찌지 못하고 쓸어지지 않았던가?

공자의 나라를 위한 몸부림이 관철됐던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열원을 품은 젊은 케네디의 가슴에는 총알이 안들어 가던가? 예수의 사랑과 간디의 혼으로 무장한 「루터·킹」의 몸에 불의의 총알이 피하던가? 「본헤퍼」가 히틀러를 죽였나 히틀러가 본헤퍼를 죽였나? 자유를 찾아 절기한 체코의 민중이 이기던가 소련의 무자비한 탱크가 이기던가?

善이 이긴다는 信念을 直線的으로 가진 사람은 반드시 좌절할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좌절에서 끝이지 않고 正義도 하나님도 저주하고 곧 불의의 편에 가담하고 말게 될 것이다. 아니! 선은 진다. 善이 이기는 건이란 善이 죽으므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죽을 자오 없는 善은 땅에 설자리가 없으며 그것은 한갓 장식품에 불과하게 된다.

간디는 죽었다. 아니 죽기로 결정했고 죽을 것을 안 善이다. 나는 그의 非暴力의 抵抗을 이렇게 이해한다. 이 운동은 不義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不義 앞에 죽을 자오하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기에 그는 용감하라! 용감하라! 라는 간단한 웨침과 함께 그냥 잡혀서 투옥될 자오를 추구했다. 간디(善)는 不義 앞에 짓 말려 죽었다. 善이 졌다. 그래도 간디는 승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善이 이긴 것이 아니냐 아니! 善하려는 그 뜻이 죽지 않은 것 뿐이다. 이 뜻이 비노바에게 베투에게 계승됐던 것 뿐이다. 오늘의 인도가 간디가 원했던 인도인가? 간디가 싸우던 不義가 제거됐는가? 아니! 그 어디서나 마참가지로 不義가 亂舞하고 있다. 간디를 죽인 不

義의 피스들은 여전히 흉탄으로 언제나 채워져 있다. 간디가 쓸어대면서 「오 하나님」 부른 것은 「나는 죽읍니다. 나는 때배 했읍니다. 불의 불 이길 불은 당신 한 분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간디」를 죽인 것은 正義로 위장한 不義에게 속아 넘어간 민중의 총탄이었다. 한 個人이 쓴 것이 아니다. 간디는 힌두에 속했으면서도 모슬렘과의 알력 앞에서 언제나 약세의 모슬렘을 싸고 돌면서 힌두들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에 민중은 분노했다. 파키스탄의 모슬렘에게 박해를 받고 추방당한 힌두들은 인도연방 안의 모슬렘들에게 복수전을 켜다. 「간디」가 그 몸을 내대고 힌두들의 난폭한 보복을 가로 막아도 저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모슬렘의 수명」이라고 욕설을 퍼 부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타골의 시 「만일 아무도 그대의 소리를 안 듣거든 혼떠나라」를 읊으면서 죽음의 단식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불의에 선동된 민중은 그가 단식 중에 있는 오막사리 주변을 돌면서 「간디를 죽여 없어 지도를 내버려 뒀다」라고 소리치며 시위까지 했다. 그 민중이 간디를 죽인 것이다.

저들은 그를 죽이고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여만명이 그 시체를 따르며 애곡했고 그를 신으로 추앙했다. 이것으로 뭉이 이겼다고 할까? 아니 그 후에도 그의 선의는 계속 불의의 총탄에 맞고 있다. 최근에도 또 다시 힌두와 모슬렘이 대 충돌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것은 웅장하게 만든 간디의 죽은 무덤에 대고 수천 수만발의 흉탄을 퍼부은 것이지 무언가?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들이 애인자를 죽여 쓸어대리고는 비석을 세우면서 계속 義人を 죽이는 것을 심판했던 것이다.

「善은 不義 앞에 진다. 그러나 不義는 時間的으로 뒤늦게 보다 더 높은 의지에 의해서 꺾꾸러진다. 그런데 이 보다 높은 의지는 쓸어진 선의 피를 그 무기로 삼는다.」 이러한 신념이 없으면 선은 천벌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義人の 피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도!

간디는 영국과 싸우면서 영국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영국과 싸우는 것이 영국을 위해서였다. 중오를 그 싸움의 무기로 삼았다면 善은 자가 당착에 빠진다. 간디는 싸움에도 不義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질 싸움이다. 그러나 그렇게 패배했기에 이겼다. 그는 그대로 죽고, 살려 일으키는 이는 다른 분이라고 믿지 않고는 못할 일, 정말 인도 군중의 욕설처럼 「미치광이」와 같은 싸움을 한 셈이다.

그런 뜻에서 그는 크리스찬 아닌 참애수의 제자였다고 할 수 있겠다.

간디가 마지막 남겨놓은 헌법은 그의 「狂症」의 증거다. 그래서 그를 것처럼 존경하는 네루도 그의 뜻을 따를 수 없었다. 간디는 헌법이라면서 소위 「政治」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당 운동, 정치적 조직을 거부했다. 그리고 議會라는 것은 경제, 사회, 도덕의 自由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나 政治構造의인 것은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議會라는 말 대신 민족에 봉사하는 모임(Lok Setak Sangh)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간디는 소위 政治, 나가서 權力을 손에 쥐는 國家

라는 것도 경원했다. 모름지기 그는 바로 이 정치라는 것이 不義의 溫床으로 빠져서리게 느꼈기 때문이라. 그렇게 善良할 수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또 善한 目的도 政治라는 構造속에 들어만 가면 變質된다. 政治속에는 어떤 魔王이 定座하고 있는지 몰라도 무서운 不義의 溫床이 된다. 政治 없는 공동체 權力 없는 行政府!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런 현실에서 보던 간다는 공상가다. 그러나 그의 不義에 대한 싸움이 얼마나 철저했으며 정치가 불의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未知의 未來를 역설했듯이 어떤 意味에서는 이 현실과 단절된 人類의 미래를 내다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未來에 대한 비존을 버리는 날 세계나 어떤 국가는 언제나 현 집권자를 위한 도구밖에 될 것이 없으리라.

간디! 오늘이 그가 난 백주년이다.

基督教 長老敎 總會

지난 9월 30일부터 기장 총회가 열렸다. 총회 표어가 「하나님은 화해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라는 70년의 세계교회의 표어와 「하나님의 선교의 역군이 되자」라는 것이었다. 소주에게 이 주체강연을 부탁해서 두번 말씀할 영광을 가졌으나 모처럼의 기대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自責에 아직도 가슴이 얼얼하다.

나는 교회의 총회라는 것을 처음 구경했다. 내게는 政治라는 것을 무서워 하는 小兒病이 있나보다. 총회도 교회정치 장소라고 해서 경원해 왔기에 그런데 가

본 일이 없다. 나는 한국 교회에서 분열의 결투를 벌인다는 얘기는 무수하게 들었어요 한번도 목격한 일은 없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白鳥야 가지 말라! 라는 경고에 충실한 새인가? 그렇다고 총회에는 까마귀만 모이고 나는 白鳥다라고 생각한다면 짐승도 失笑할게다. 문제는 政治의 이어야 한다는 그 構造性 때문이다. 그런데 總會란 政治的 議會型式을 가졌고 執行部도 있으나 國家가 가진 것 같은 絕對權이 없다. 전에는 교회가 出敎, 나가서는 死刑權까지 가졌다. 그래서 억울한 죄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그대의 敎權主義를 그대로 지닐려고 하나 그런 해결권은 없다. 그래서 결국 당과 구성, 교인들의 교단동의 노력으로 계속 싸움을 지연할 수 있게 돼있다. 지쳐서 물러서는 자는 있어도 맷장만 세번 누구도 내 물지는 못한다. 그러니 총당에는 국가법에 호소한다. 이때서 빌라도 法廷이 계속 재연된다. 實力行事權도 없으면서 敎權的인 政治體로 몽상하는 데 敎會의 妥善환이 있다. 그래서 남의 눈에는 「더 더럽고 치사하게」 보인다. 나는 敎會가 특히 썩었다는 비판은 반대한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다른 어떤 단체 보다는 깨끗하다. 敎會의 威力은 아직도 많다. 그 멤버들도 이것이 참 眞理라고 알면 복종할 태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나는 罪는 中世紀의 교회관의 잔재에 있다고 본다. 政治的인 道具로 된 그 교회관 말이다. 언젠가 나는 汽車로 釜山으로 가면서 十字架를 단 교회建物이 그처럼 많은 것을 보고 새삼 놀랐다. 구석구석 침투 안한 곳이 없어 보

였다. 교회는 자고있는獅子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것이 깨어나서 한 목표를 향한다면 누가 당해 낼까? 政治團體들의 소위 地區黨設置 상황보고를 들을 때마다 敎會의 분포도를 세력권의 분포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힘이다. 만일 기독교가 스스로를 위한 일에서 脫皮해서 그 힘을 밖으로 뻗친다면 그 힘을 누가 당하랴!

그러나 교회는 「너」를 위한 싸움에서만 힘이 날 수 있고 승리 할 수 있다. 「너」는 홍해야 하고 나는 쇠칼된다」라는 자오가 서는 날이면 그는 깨어난 사자가 될 것이다. 나는 總會에 전국에서 모인 대표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존경의 마음이 생겼으며 主의 손이 저들을 깨여 일으켜 주시기를 기원했다. 「하나님은 화해하고 自由롭게 한다」. 그런데 그의 손발은 사람인 것이다. 화해, 나가서는 平和를 위할려면 平和를 가르막는 不義와 싸워야 한다. 平和를 위해서 「싸워야」한다는 이 아이로니를 어떻게 타개할까?

自由를 위한 싸움은 責任이란 것을 내세워야하는 아이로니가 뒤따른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까? 自由의 쟁취를 위해서 무엇인가 의지해야 한다. 무엇을 의지하면 또 그것에 애속된다. 제한성을 다 제거하고 自由만 주장하면 사람은 증발해 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자유케 한다는 믿음만이 自由를 위한 싸움의 대열에선 사람을 自由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교두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自由를 위해서라는 善意가 직접 不義를 이길 수 있다는 信念은 버리고 나와 이 善意마저도 不義 앞에 짓밟혀 죽는다는 현실을 승인할 때만 그 善意가 좌절되거나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 뿐이다. 나는 이 믿음을 애써 강조하려고 했다. 나는 이 장원에서 예수의 十字架를 생각하고 간디, 그리고 본 회퍼를 생각 했다.

두가지 물음

편지로 구두로 받은 질문중에 성서에 대한 물음과 신학에 대한 물음이 제일 많았다. 내가 성서를 최종 기점으로 한다면서 성서를 것처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라는 질문과 많은 사람이 당신은 볼트만(Bultmann) 밖에 모르며 거기서 헤어지지 못 했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하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의 대답은 몇 마디로 할 수 없으며 「現存」이 그 연물을 쌓아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들어날 것이며 인젠가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과제로 아나 우선 여기서 간단한 대답의 의무를 느낀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관성은 내세울 수 없다. 그러나 참 신학자는 성서에 그 생명을 준다. 성서는 연구해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리고 그 뿌경을 열다 라는 말에는 복종 할 수 없다. 아나! 성서는 연구해서 이해할 때만이 그 뜻에 복종 할 수 있다. 聖書의 「聖」字는 읽고 가서 붙인 것이고 그것은 원래 단순한 책(Biblos=Book)이다. 그 책은 사람의 말로 써여졌다. 그러니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들의 글이다. 그것도 오랜 세월동안 작은 유대 민족의 역사와 크리스찬이란 소 집단의 「삶의 자리

를 통해서 형성 됐다. 따라서 적어도 二千年 전의 세계관, 개념, 문장으로 됐다. 따라서 성서를 읽으면 우선 이러한 수천년의 시간적인 장벽에 부딪힌다.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에 담겨 있는 참 뜻을 만날 길이 없다. 전에는 교회라는 권위를 믿고 거기에 모든것을 맡겼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교회의 미사에서 神父가 성찬의 떡을 입에 넣어주듯이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눈감고 입벌려 받아 먹으면 됐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지고 골라 먹여 주는 권위도 없거니와 우리들 자신도 그런 권위를 승인하지 않는다. 신학자들이 이 장벽을 뚫기 위해서 팽이를 든 것은 불과 200년도 안된다. 그러한 용기를 얻은 것은 계몽주의 덕분이다. 저들은 텍스트 비판, 역사비판학적 방법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마침내 통로를 뚫었으며 지금도 그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래서 발견한 단층은 여러 점이었다. 헬렌니즘적인 점을 뚫으니 초대 그리스도인의 역사적 상황, 그것을 뚫으니 케리그마, 그리고는 일단 이 작업이 정지되었다. 그 때까지 뚫고 예수에게 까지 이를 수 있는 통로는 막혔다. 그러나 최근에는 또 다시 편집사적 연구 방법이라는 팽이를 들고 복음기자들의 사상을 파헤친다.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노고에서 전에 모르던 많은 것이 발견됐고 무한한 서광이 비치었다. 우리는 저들이 파놓은 길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광맥은 발견된 것이다. 또 팽이질에서 적고 큰 금덩이도 많이 찾아 왔다. 그래서 성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어떻게 이를 지어야 할지 모르나 성서는 나를 잡고 놓지 않는다. 성서에서 밝혀진 말씀은 남의 얘기책 읽듯이 오 그랬구나 해지지 않고 바로 내게 하는 물음으로 들리며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할 의무를 느낀다. 「아담아 네가 어디있느냐?」라는 물음이 바로 「네가 어디있느냐?」라는 내게 향한 물음(Anrede)이 된다. 즉 성서는 내게 決斷을 요구한다. 나는 그 요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해지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나는 성서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것은 외적 권위보다는 바로 성서 안에서 바로 내 實存의 물음과 대답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신학이 열어준 길이다.

그러면 「볼트만」만 따르면 되나? 천만에 나는 「볼트만」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가 파고 들어간 길을 따라가 본다. 그는 결코 혼자 그길을 뚫은게 아니다. 아니, 짧게 잡는다고 해도 말틴 루터가 첫 팽이질 한 후에 계속된 수많은 학자들이 파고 들어간 그 鑛路를 進一步한 것뿐이다. 그는 하나의 鑛夫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광부다.

그러나 그가 파낸 금부스러기로 금반지를 만들 것인지 이(辭)를 고칠 것인지는 볼트만이 명령할 권리도 없고 복종할 의무도 느끼지 않는다. 또 그가 파 나가던 方向이 그 다음의 鑛夫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의 성서 해석의 方法이나 分析에 나는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그의 신학차적 결론(그를 실존 신학자라고 한다.)은 절대가 아니다. 그것

은 可變的인 것이다. 또 그 自身도 그런 교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의 신학적 결론에 영향받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로 그의 결론이 내게는 가장 남득이 가기 때문에 많은 동의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말을 했다 거나 또 완벽한 대답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아 니! 아직 못 한 대답, 아직도 불투명한 대답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나는 학생들에게 신학적 계보를 따라 파고 들어 가기를 권한다. 산중에서 홀로 여기저기를 한 번씩 샅샅이 해서는 안된다. 우물은 계속 한 곳을 파야 한다. 물줄기가 보이는 데 왜 다른데를 따라!

그렇다고 내가 이미 「볼트만」이 파 놓은 데 까지 도달한 것도 아니다. 그가 파 놓은 길 따르기도 요원하다—그랬으면 좋게—그러나 나는 볼트만의 노예는 아니며 그걸 마음도 없다. 적어도 그는 나를 명령할 권리는 없다. 나를 명령할 권리는 성서만이 있다. 그런 뜻에 성서는 내게 지상의 명령권을 가졌다. 그러면 성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대답을 꺼린다. 왜냐 하면 당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결코 自明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